

광주는 '평화'로

2007년 5월

한반도 '통일'로



17일 밤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 시민들이 1980년 5월16일에 거행된 '햇불행진'을 재연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



역사적인 남북철도 연결 열차가 시험운영된 17일 오전 경의선 문산역에서 열차가 힘찬 기적소리를 울리며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광주 인권 끝어안다

오늘 5·18 27주년 기념식...盧대통령 참석

▶ 관련기사 3·4·7·8·16·20면 ▶ 화보 14면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3부 요인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한 민주 인사와 유족, 5월단체 회원, 시민 등 2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이번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 20주년과 연계돼 열릴에 따라 5·18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세계 인권·평화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27주년 기념식에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및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 박상천 대표, 민노당 문성현 대표,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 국민중심당 삼대평 대표 등 각 당 대표와 당직자,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27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는 전국에서 물러온 1만5천여명의 참매객들로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이날 오전 9시 5·18 묘지에서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박관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이홍길 5·18 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장을 비롯한 유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7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5·18 영령을 위한 천도제가 열려 5월 영령의 극락왕생을 빌었고, 금남로에서는 '광주 시민 주먹밥 나누기' '5·18 체험 마당' '미리 보는 6·10 항쟁' 등 다양한 5월 행사가 펼쳐졌다.

오후 6시에는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시민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에서 6월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27주년 전야제가 성대히 열렸다.

인도 산티아고 평화의 예술단과 일본의 진보 음악활동 그룹인 '우타고에'의 특별공연으로 5·18 전야제의 시작을 알렸고, 진보연대 연합 풍물패와 시민연합 풍물패 등이 연합한 거리행렬 구이 전야제 열기를 고조시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범여권 대통합 광주회동 무산

5·18 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17일 범여권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광주에 총집결했지만 대통합 모색을 위한 회동은 무산됐다. <관련기사 3·4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그동안 "5·18에서 6·10 사이에 대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혀왔었고, 일부에서 5·18 공동참배와 연석회의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 지역 재야 원로들이 추진한 3당 연석회의도 일부 정파의 부정적 입장 표명으로 불발됐다.

각 정파는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계승과 대통합의 당위성을 호소하면서도 막상 통합 논의의 방향과 방법론을 놓고는 각자가 통합의 중심역임을 강조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전에 골몰하는 모습만을 연출했다. /정후식기자 who@

남북철마 분단벽 넘었다

경의·동해선 어제 12시18분 군사분계선 통과

반세기 가 넘도록 달리기를 갈망하던 남북 열차가 17일 냉전의 그늘을 뒤로 하고 분단의 한을 뛰어넘고 다시 이은 한반도의 허리를 오르내렸다.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서울-개성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이다. <관련기사 5면>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각각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30분 북측 개성역과 남측 제진역을 향한 열차를 동시에 움직였다.

북측 철마의 열원을 담은 남측의 경의선 디젤기관차는 낮 12시 18분경 북으로, 동해선의 북측 열차는 낮 12시 21분을 전후로 남으로 각각 군사분계선(MDL) 통과하며 역사에 남을 장면을 연출했다.

운행 구간은 경의선이 편도 27.3km, 동해선이 25.5km이다. 양쪽 열차에는 우리 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 등 모두 150명씩이 탑승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앞서 경의선에는 북측 열차 탑승자들이 출입사무소를 거쳐 행사장인 문산역에 도착했으며 동해선에 타는 우리 측 탑승인원은 북측 금강산역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45분을 전후해 각각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기념 행사에서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적 물류망을 형성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추사에서 "앞으로도 북과 남이 뚫고가는 통일의 기관차가 민족중심,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계도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금강산역에서 열린 동해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사에서 "시험운행이 남북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앞당겨 계속해서 남으로, 북으로 열차가 오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경의선·동해선 개통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남측에서는 경의선에 이재정 장관을 비롯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이춘희 건교부 차관,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이, 동해선에는 이용섭 장관과 조일현 건설교통위원장, 이성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됐다.

북측의 경우 경의선에 권호웅 책임참사와 김철 철도성 부상 등이, 동해선에 김용삼 철도성과 주동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등이 각각 탑승했다. /연합뉴스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지원합니다.

52 호남예술제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 미술, 작문, 논술부문 신청

● 예선 공모 : 5월 19일(토) 마감!

● 예선 결과 : 5월 29일(화) 홈페이지 발표

● 접수방법 : 인터넷·한글(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우편·방문 접수가능 T.062)220-0541

새싹 그리기 축제

■ 심사방식

- 공모에 의한 작품 접수후 심사

■ 시 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일정 및 요강

- 대 상 :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용모기간 : 2007년 6월 1일(금) ~ 6월 19일(화)
- 결과발표 : 2007년 7월 3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 작품크기는 8월이며 주제는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참가비 : 개인당 5,000원(20명이상 단체시 할인)
- ※ 공모시 화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SAMSUNG 삼성생명 POSCO ex** 한국도로공사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다산 문화재단**

미술·작문·논술대회

- ▶ 예선/결선대회로 실시
-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 ▶ 논술부문 초등부 1·2학년 제외

장 학 금

- *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 각100만원
- * 합창·합주제 대상
- 각1명 50만원
- * 개인·단체 최고상
- 초등 20만원 · 중등 30만원 · 고등 50만원